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Life Satisfaction for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문 혁 준**

Moon, Hyuk Jun

Abstract

Using ecological persp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variable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The subjects were 623 mothers who had preschool and kindergarten age children living in Seoul, Inchon, and Kyonggi areas. Results showed that the life satisfaction was higher in employed mothers and differed by mothers' and fathers' educational level, family composition, and family income. Life satisfaction of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correlated highly with parental stress, husband's support of child-rearing, social support, and satisfaction with early childhood program. Husband's support of child-rearing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for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mothers.

Key Words : 취업모(employed mother), 비취업모(unemployed mother),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 접수 2003년 6월 30일, 채택 2003년 7월 22일

* 본 연구는 2003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전공 조교수,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주관적 삶의 질이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생존을 위해 경제적인 성공에 집착했던 과거와 달리, 생활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가 커졌다(조용수, 1996).

생활만족은 생활주체자가 경험하는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느낌의 복합적 상태(Liu, 1970)이며, 개인이나 집단이 현재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만족감(Havighust, 1963)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Neugarten과 그의 동료들(1961)은 생활만족을 개인의 정신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특히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체인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는 개인적 차원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자녀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Dodge, 1990)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관계되는 변인을 밝히는 작업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하위영역을 정리해 보면(김재경, 1992; 이정우·이정숙·박미금, 1998; 전지원·이정우, 2000),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 가족원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만족,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 경제적 자원에 대한 만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직업에 대한 만족,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 교육적 성취에 대한 만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대상별로 살펴보면, 취업주부(이정숙, 1994), 기혼취업여성(한경미, 1995), 생산직/사무직 기혼여성(조희금, 1999), 취업모(이희정·이숙현, 1995), 맞벌이 부부(이정우·강기

연, 2001), 편모(신화용·조병은, 1996), 저소득층 여성가장(이재림·옥선화, 2001), 중년기 기혼여성(임효영·김경신, 2001), 중년기 남성(이기숙·김현지, 2002), 맞벌이 부부의 아버지(홍미영, 1999), 노인(서말희·유가효, 1999), 노년기 부부(김경신·이선미, 2003), 거동불편 노인(윤종희·김덕성·안령미, 2001) 등이 있다.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으로는 자녀수, 자녀의 연령, 부모의 연령 및 교육수준, 가계수입, 결혼만족, 직업만족, 남편의 참여, 사회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자녀수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이정우·강기연, 1998), 특히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낮았다(Caycedo & Rollins, 1989).

부모의 연령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조혜정, 1994), 몇몇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이정우·강기연, 1998)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대다수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와 주부의 교육수준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Longmore & Demaris, 1997; 임정빈, 1988; 최동숙 1992), 특히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Kim, 1992)와 주부의 생활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김경숙·이정우, 1995) 남편의 학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가계소득수준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소득간에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임정빈, 1988; Voydanoff & Donnelly, 1999), 주부의 유급노동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부부의 복지감과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숙, 1993; Zvonkovic &

Schmiege, 1994; Rogers, 1999).

Berry와 Williams(1988)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이 주부의 소득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켜 결혼만족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조희금(1999)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아져 취업여성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Glenn(1990)과 Greenberger와 O'Neil(1993)은 결혼의 질이 높을 때 여성의 심리적 불안이 낮아지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혔으며, 이희정·이숙현(1995)의 연구에서는 취업모가 결혼에 만족할수록, 남편이 자녀양육분담을 많이 할수록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남편의 지원은 취업모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역할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울러 임효영·김경신(2001)은 복잡한 사회와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질적, 정신적, 인적 지원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지원망은 기혼여성의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체계임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여성취업자 중 기혼여성 비율이 75.1%에 이르고 있으며(통계청, 2000), 특히 6세 미만의 유아를 둔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은 경제적 보상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면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직업 역할 수행에 따른 갈등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내의 역할구조, 상호작용 유형 등에 변화를 요구하며 가족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의 양육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유아기의 어머니 취업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자녀의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주요 변수로써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변화되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속에서 취업모를 이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이어졌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취업모 역할수행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취업과 관계된 각 역할에서의 만족과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를 중심으로 취업모가 처한 가정과 사회적 환경은 비취업모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여성의 다중역할을 연구할 때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을 포함한 제반요인들과 그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음에도(Baruch & Barnett, 1987) 불구하고 가족학적 관점이 아닌 아동학적 관점에서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상호 비교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더 나아가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주요 선행조건인 생활만족도를 아동과 부모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 시도와 취학전 아동의 유아교육기관 의존도가 2000년 현재 50%(교육통계연보, 2000)에 이르는 현실적 맥락에서 기관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를 생활만족도 차원에서 고려한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학전 자녀를 가진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아동, 부모, 가정, 기타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만족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취업유무에 따른 차별화된 부

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 1-1.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는 가족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3.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는 가정

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와 아동변인(성별, 연령, 기질), 부모변인(연령, 교육수준,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가정변인(자녀수, 가족형태, 가계수입), 기타변인(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유아교육기관만족도)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로 선정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6개 어린이집과 6개 유치원에 자녀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취업모(N=323)		비취업모(N=300)	
	M	SD	%	%
아버지의 연령	37.55	3.97	36.66	4.07
어머니의 연령	34.86	3.48	33.54	3.81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8.9		34.9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1.2		13.8
대졸		51.9		43.9
대학원졸		17.9		7.3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29.8		59.4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9.1		13.3
대졸		42.6		27.0
대학원졸		8.5		0.3
가계수입(月)				
200만원 미만		10.9		34.6
200-299만원		21.6		38.9
300-399만원		25.6		14.8
400만원 이상		41.9		10.7

를 취원시키는 어머니 623명으로 자녀의 평균 연령은 3.05세(SD=.976)였고 남아가 47.0%이었다. 어머니의 51.3%가 취업한 상태이며, 직업은 교사 15.3%, 회사원 10.9% 순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42.1%, 자영업 23.4%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3.5%, 확대가족이 16.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조사도구는 총 120문항의 설문지로서, 일반적 문항, 생활만족도 문항, 기질 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문항, 양육스트레스 문항, 사회적 지원 문항, 유아교육기관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생활만족도

Hayes와 Stinnett(1971)의 척도를 모체로 수정

보완한 척도로 총 24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영역(결혼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확실히 그렇다'의 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2) 기질

천희영(1993)이 우리나라 아동의 기질구성차원으로 밝힌 5개 구성차원(활동성,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반응성, 정서성) 33개 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활동성,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16문항만 사용하였다.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의 활발함을 의미하며,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를 의미하며,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을 의미한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차원의 행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3)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현은강·조복희(1994)가 개발한 어머니 역할만족도의 5개 하위영역(일반적인 만족, 부모-자녀관계, 배우자의지지, 부모역할갈등, 자녀의지지) 중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지지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4)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rnic과

Greenberg(1990)가 개발한PHD(Parenting Daily Hassles)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녀양육 요인'의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많이 느낀다'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척도의 하위영역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문항수	신뢰도 계수
생활만족도	17	.89
결혼만족도	4	.83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	5	.77
생활수준만족도	4	.89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	4	.77
기질	16	.66
활동성	6	.71
규칙성	3	.84
적응성	7	.88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10	.93
양육스트레스	15	.89
부모됨으로 인한 스트레스	8	.82
자녀양육요인	7	.85
사회적 지원	19	.91
정보적 지지	4	.75
의존적 지지	3	.66
타인에 대한 지지	4	.73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지지	4	.72
소속감의 지지	4	.58
유아교육기관 만족도	20	.92
통원	3	.85
시설	5	.78
교육시간 및 내용	4	.81
교사	3	.85
부모교육	5	.88

5)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Weiss (1974)에 의해 개발된 여섯 하위 영역 총 24문항 중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제외한 정보적 지지, 의존적 지지, 타인에 대한 지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지지, 소속감의 지지 등 1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에서 4점까지 배점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지지적이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6) 유아교육기관만족도

Furqua와 Labenson(1986)이 제작한 Parents as Consumers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김은숙(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20문항이며,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취원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어머니가 만족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척도의 하위영역의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조사는 2002년 9월 중에 실시되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통해 배부된 어머니 설문지 1000부 중 65%인 65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시키고 총 623부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모든 분석을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Cronbach α 의 계수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1>을 위하여 t검증, <연구문제 2>를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연구문제 3>을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모가 비취업모 보다 전체 생활만족도($t = -3.27, p < .001$)와 하위영역의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t = -8.00, p < .001$), 생활수준만족도($t = -1.92, p < .0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결혼만족도와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표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생활만족도

		N	M	SD	t
결혼만족도	비취업모	300	14.08	3.43	-.07
	취업모	323	14.10	3.39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	비취업모	300	14.28	3.79	-8.00**
	취업모	323	16.69	3.73	
생활수준만족도	비취업모	300	11.49	3.87	-1.92*
	취업모	323	12.06	3.60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	비취업모	300	11.16	3.25	.49
	취업모	323	11.02	3.41	
전체	비취업모	300	51.00	11.25	-3.27***
	취업모	323	53.87	10.70	

* $p < .05$ ** $p < .01$ *** $p < .001$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있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모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가 고졸 이하의 어머니 보다 전체 생활만족도($t=-2.68, p<.01$)와 하위영역의 생활수준만족도($t=-2.93, p<.01$),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t=-2.36, p<.05$)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모의 경우 생활수준만족도에 서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t=-1.96, p<.05$). 다시 말하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자신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체생활만족도와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배우자(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있어 배우자(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졸 이상 학력의 배우자(남편)를 가진 취업모는 대졸 미만 학력의 배우자(남편)를 둔 취업모 보다 전체 생활만족도

<표 4>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N	M	SD	t
결혼만족도	비취업모	고졸이하	174	13.98	3.55	-.62
		전문대졸이상	119	14.24	3.31	
	취업모	고졸이하	95	13.63	3.85	
		전문대졸이상	224	14.31	3.19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	비취업모	고졸이하	174	14.44	3.91	.80
		전문대졸이상	119	14.08	3.58	
	취업모	고졸이하	95	16.17	4.26	
		전문대졸이상	224	16.98	3.44	
생활수준만족도	비취업모	고졸이하	174	11.11	3.91	-1.96*
		전문대졸이상	119	12.02	3.85	
	취업모	고졸이하	95	11.21	4.06	
		전문대졸이상	224	12.48	3.30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	비취업모	고졸이하	174	11.06	3.21	-.49
		전문대졸이상	119	11.25	3.28	
	취업모	고졸이하	95	10.34	3.61	
		전문대졸이상	224	11.32	3.31	
전 체	비취업모	고졸이하	174	50.60	11.23	-.73
		전문대졸이상	119	51.59	11.36	
	취업모	고졸이하	95	51.35	11.99	
		전문대졸이상	224	55.09	9.91	

* $p<.05$ ** $p<.01$ *** $p<.001$

〈표 5〉 배우자(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만족도

			N	M	SD	t
결혼만족도	비취업모	대졸미만	141	13.96	3.35	-.52
		대졸이상	148	14.18	3.54	
	취업모	대졸미만	94	13.50	3.72	-1.97*
		대졸이상	218	14.33	3.27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	비취업모	대졸미만	141	14.62	3.88	1.56
		대졸이상	148	13.92	3.71	
	취업모	대졸미만	94	15.33	3.89	-4.36***
		대졸이상	218	17.29	3.53	
생활수준만족도	비취업모	대졸미만	141	11.32	3.78	-.37
		대졸이상	148	11.49	3.99	
	취업모	대졸미만	94	10.85	4.14	-3.96***
		대졸이상	218	12.59	3.27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	비취업모	대졸미만	141	10.95	3.02	-.68
		대졸이상	148	11.21	3.40	
	취업모	대졸미만	94	9.95	3.58	-3.67***
		대졸이상	218	11.46	3.25	
전 체	비취업모	대졸미만	141	50.85	10.72	.05
		대졸이상	148	50.79	11.88	
	취업모	대졸미만	94	49.63	11.62	-4.40***
		대졸이상	218	55.67	9.85	

*p<.05 **p<.01 ***p<.001

($t=-4.40, p<.001$)와 모든 하위영역 즉 결혼만족도($t=-1.97, p<.05$),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t=-4.36, p<.001$), 생활수준만족도($t=-3.96, p<.001$),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t=-3.67, p<.00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라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배우자(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체생활만족도와 모든 하위영역의 생활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족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있어 가족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핵가족내의 취업모는 확대가족내의 취업모 보다 생활수준만족도에서만 높게 나타난($t=2.46, p<.05$) 반면 핵가족내의 비취업모는 확대가족내의 비취업모 보다 결혼만족도($t=2.06, p<.05$),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t=1.98, p<.05$),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t=1.99, p<.05$)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비취업모는 취업모에 비해 결혼만족도,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를 핵가족내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가족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

			N	M	SD	t
결혼만족도	비취업모	핵가족	258	14.24	3.39	2.06*
		확대가족	42	13.07	3.53	
	취업모	핵가족	262	14.14	3.42	.50
		확대가족	61	13.90	3.29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	비취업모	핵가족	258	14.45	3.77	1.98*
		확대가족	42	13.21	3.76	
	취업모	핵가족	262	14.45	3.59	.58
		확대가족	61	16.44	4.28	
생활수준만족도	비취업모	핵가족	258	11.38	3.82	-1.14
		확대가족	42	12.12	4.15	
	취업모	핵가족	262	12.30	3.68	2.46*
		확대가족	61	11.05	3.08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	비취업모	핵가족	258	11.31	3.16	1.99*
		확대가족	42	10.24	3.65	
	취업모	핵가족	262	11.18	3.28	1.65
		확대가족	61	10.38	3.88	
전체	비취업모	핵가족	258	51.38	11.16	1.42
		확대가족	42	48.64	11.67	
	취업모	핵가족	262	54.36	10.62	1.67
		확대가족	61	51.77	10.80	

*p<.05 **p<.01 ***p<.001

6. 가계수입에 따른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있어 가계수입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0만원 이상의 가계수입을 가진 취업모는 300만원 미만의 가계수입을 가진 취업모 보다 전체생활만족도($t=-2.54, p<.05$)와 하위영역의 결혼만족도($t=-3.35, p<.01$),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t=-2.15, p<.05$), 생활수준만족도($t=-9.00, p<.00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0만원 이상의 가계수입을 가진 비취업모는 300만원 미만의 가계수입을 가진 비취업모 보다 전체생활만족도($t=-3.74, p<.001$)와 하위영역의 결혼만족도($t=-2.91, p<$

.01), 생활수준만족도($t=-6.00, p<.001$)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전체생활만족도와 하위영역의 결혼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생활만족도와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생활만족도에 관계되는 아동(성별, 연령, 기질), 부모(연령, 학력,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가정(자녀수, 가족형태, 가계수입), 기타(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유아교육기관만족도)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모와 비취업모

〈표 7〉 가계수입에 따른 생활만족도

			N	M	SD	t
결혼만족도	비취업모	300만원 미만	222	13.74	3.41	-2.91**
		300만원 이상	78	15.04	3.32	
	취업모	300만원 미만	104	13.19	3.42	-3.35**
		300만원 이상	219	14.53	3.30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	비취업모	300만원 미만	222	14.14	3.73	-1.05
		300만원 이상	78	14.67	3.93	
	취업모	300만원 미만	104	16.05	3.91	-2.15*
		300만원 이상	219	17.00	3.61	
생활수준만족도	비취업모	300만원 미만	222	10.73	3.65	-6.00***
		300만원 이상	78	13.63	3.71	
	취업모	300만원 미만	104	9.72	3.46	-9.00***
		300만원 이상	219	13.17	3.10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	비취업모	300만원 미만	222	10.98	3.18	-1.62
		300만원 이상	78	11.67	3.40	
	취업모	300만원 미만	104	10.59	3.51	-1.60
		300만원 이상	219	11.23	3.35	
전 체	비취업모	300만원 미만	222	49.59	11.04	-3.74***
		300만원 이상	78	55.00	10.97	
	취업모	300만원 미만	104	50.73	10.02	-2.54*
		300만원 이상	219	54.81	10.39	

*p<.05 **p<.01 ***p<.001

모두 전체생활만족도와 하위 전 영역에서 부모 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r=.28\sim.64$), 양육스트레스($r=-.16\sim-.31$), 사회적 지원($r=.17\sim.41$), 유아교육기관만족도($r=.12\sim.26$)와 상관이 있었다. 한편, 아동군에서 취업모의 경우 활동성과 전체생활만족도($r=-.16$), 결혼만족도($r=.11$),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r=.17$),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r=.15$)와 상관이 있었으며,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아동의 연령과 생활수준만족도($r=-.11$, $r=-.13$)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군에서는 비취업모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과 전체생활만족도($r=-.11$), 결혼만족도($r=-.15$), 아버지의 연령과 결혼만족도($r=-.16$)와 상관이 있었으며, 취업모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전체생활만족도, 생활수준만

족도,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와 상관관계($r=.13\sim.26$)가 있었다. 가정군에서는 비취업모의 경우 가족형태와 결혼만족도($r=-.12$),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r=-.11$),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r=-.11$)와 관련이 있었으며, 취업모의 경우는 가족형태와 생활수준 만족도($r=-.14$)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가계수입은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전체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r=.17\sim.45$)와 관련이 있었다.

8. 각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독립변인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 독립변인들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살

〈표 8〉 취업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와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아동군					
성별 ¹⁾					
비취업모	-.07	-.07	.06	.03	-.02
취업모	-.05	-.02	.02	-.04	-.03
연령					
비취업모	-.01	.06	-.13*	.02	-.07
취업모	-.15	.04	-.11*	-.05	-.06
기질					
활동성					
비취업모	-.06	.06	.06	.05	.04
취업모	.11*	.17**	.04	.15**	.16**
규칙성					
비취업모	.06	-.03	.00	-.01	.01
취업모	.05	.02	.06	-.05	.03
적응성					
비취업모	.06	.04	-.00	.10	.06
취업모	.60	.03	.01	.01	.03
부모군					
어머니 연령					
비취업모	-.15**	-.05	-.08	-.08	-.11*
취업모	-.08	.01	-.07	-.01	-.05
아버지 연령					
비취업모	-.16**	-.02	-.03	-.01	-.07
취업모	-.13	-.01	-.05	-.07	-.08
어머니 교육수준					
비취업모	.04	-.05	.11	.03	.04
취업모	.09	.10	.16**	.13*	.16**
아버지 교육수준					
비취업모	.03	-.09	.02	.04	-.01
취업모	.11	.24***	.22***	.20***	.26***
배우자의 지지					
비취업모	.64***	.35***	.36***	.35***	.54***
취업모	.57***	.29***	.32***	.28***	.48***
가정군					
자녀수					
비취업모	-.05	-.01	-.07	-.04	-.05
취업모	.04	.07	-.04	-.03	.02
가족형태 ²⁾					
비취업모	-.12*	-.11*	.07	-.11*	-.09
취업모	-.03	-.03	-.14*	-.09	-.10
가계수입					
비취업모	.17**	.06	.33***	.09	.21***
취업모	.18**	.12*	.45***	.09	.28***

〈표 8〉 계속

기타군					
양육스트레스					
비취업모	-.22***	-.23***	-.27***	-.24***	-.31***
취업모	-.21***	-.30***	-.16**	-.25***	-.31***
사회적 지원					
비취업모	.33***	.29***	.28***	.41***	.41***
취업모	.17**	.33***	.27***	.35***	.37***
유아교육기관만족도					
비취업모	.23***	.15**	.21***	.20**	.25***
취업모	.12*	.26***	.20***	.17**	.25***

1 : 결혼만족도, 2 : 직업(가사포함) 및 하루일과 만족도, 3 : 생활수준만족도, 4 :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 5 : 전체
¹⁾ : 남아, ²⁾ : 여아, ¹⁾ : 핵가족, ²⁾ : 확대가족

〈표 9〉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생활만족도	
	취업모 β	비취업모 β
아동군		
성별 ¹⁾	-.07	.01
연령	.03	-.02
기질		
활동성	.09	.04
규칙성	.11*	.00
적응성	-.05	-.08
부모군		
어머니 연령	.00	-.19*
아버지 연령	-.10	.13
어머니 교육수준	.01	.07
아버지 교육수준	.09	-.10
배우자의 지지	.36***	.42***
가정군		
자녀수	.06	-.06
가족형태 ²⁾	-.08	-.02
가계수입	.18***	.17**
기타군		
양육스트레스	-.17**	-.08
사회적 지원	.18***	.26***
유아교육기관만족도	.11*	.07
R ²	.42	.43
F	12.96***	12.58***

*p<.05 **p<.01 ***p<.001

¹⁾ : 남아, ²⁾ : 여아, ¹⁾ : 핵가족, ²⁾ : 확대가족

펴본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아동의 규칙성($\beta=.11$), 배우자의 지지($\beta=.36$), 가계수입($\beta=.18$), 양육스트레스($\beta=-.17$), 사회적 지원($\beta=.18$), 유아교육기관만족도($\beta=.11$)가 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으며, 어머니의 연령($\beta=-.19$), 배우자의 지지($\beta=.42$), 가계수입($\beta=.17$), 사회적 지원(β

$=.26$)이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 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에 의해 취업모의 생활만족도는 42%,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는 43%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가 부모-자녀 관계 및 아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아동, 부모, 가정, 가정외적 차원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살펴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전체 생활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는 직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보상이 개인적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켜 생활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보고된 Umberson과 Gove(1989)의 연구와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획득되는 다양한 보상이 부부관계에 있어 수평적 관계를 가능하게 함은 물론 생활만족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Thompson & Walker, 1991)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 이정우·강기연(1998)과 Lennon과 Rosenfield(1994) 결과와는 불일치한다.

한편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 연구가 실시된 시점이 한국 사회의 경제사정이 IMF이후 다시 악화되고 불황이라는 것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은 앞으로 닥칠 경제상황에 대하여

불안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는 추세이어서 경제적 운택에 대한 만족감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취업모의 경우 자신의 학력과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경우 전체 생활만족도와 생활수준만족도, 여가 및 사회참여만족도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Robbins 1993; 최동숙, 1992)와 일치하는 것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및 직업 지위와 수입도 높아지기(Hefferan, 1982)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Wesson(1996)의 연구에서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의 공평성 인지수준과 의사결정 공동참여도(이정우·강기연, 2000; Rosenbluth, Steil, & Whitcomb, 1998)가 높으며, 고학력의 남편은 현재의 가사노동 분담을 아내에게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Sanchez와 Kane(1996)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력이 높아지면서 부부가 동등하고 공평하게 역할을 공유하고 상호이해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는 어머니의 생활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핵가족내의 취업모는 확대가족내의 취업모보다 생활수준만족도에서만 높게 나타난 반면 핵가족내의 비취업모는 확대가족내의 비취업모보다 결혼만족도,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 여가 및 사회참여 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모 또는 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가 별거하는 며느리들보다 더 많은 부양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신숙·서병숙, 1994)와 일치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하는 비취업모에게 확대가족은 더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숙현·손승영(1995)의 연구에서 며느리가 취업 상태일수록, 확대가족에서 본인이 받는 혜택을 더 지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며느리의 세대간 동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도 이상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즉 도시 취업모의 절반 이상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의 확대 가족원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전세경, 1994) 자녀양육, 가사노동의 분배 등 확대가족을 통해 얻는 이득이 많아 취업모는 비취업모에 비해 가족형태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넷째, 가정수입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전체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직업 및 하루일과 만족도, 생활수준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부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높은 인지수준은 가정생활 만족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한 최동숙(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계소득의 증가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도움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잇점 등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전체생활만

족도(하위 전영역 포함)와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유아교육기관만족도와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간 상호작용이 일어난 호혜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외적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여섯째, 회귀분석결과 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아동의 규칙성이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아동 특성인 기질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유아의 일상생활이 규칙적이면 다중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취업모의 자녀 양육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생활만족도를 높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곱째, 비취업모와 달리 취업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자녀가 취원하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다. 이는 취업모의 탁아만족수준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직접 연관을 가진다는 결과(Mann & Thornburg, 1987)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문직 취업여성의 59.6%가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이영, 1986), 취업모의 보육시설 의존도가 50.0%로 비취업모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등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양육은 가장 큰 문제임을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편의 지원정도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 모두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이정우·황경혜·박미금, 1994),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한 Marshall(1990)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이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아버지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직업만족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홍미영, 1999)와 비교할 때 경제적인 가족부양은 남성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기혼 여성의 취업이 가정에서의 전통적 역할 수행을 전제로 첨가되는 부수적인 역할로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수입 증가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으나 자칫 애착 결여와 양육이 소홀하여 아동 문제와 청소년 문제 유발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가정이나 직장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주는 가족, 친척,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및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부모역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진 결과는 남편들의 가사 및 자녀 양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사회, 기업, 정부 차원의 홍보 및 지원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셋째, 취업여성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질적 수준을 갖춘 보육프로그램의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서울지역 맞벌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1999년 4월에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장보육시설이 지역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보다 만족도가 높음을 감안할 때 가정·아동복지 차원에서 취업모를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의 확충 및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다양한 환경적 변수들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만족에 대한 개념은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실제 결과 사이의 일치 정도와 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개념의 정의 및 측정이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둘째, 취업모의 생활만족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유형, 직장의 근무조건, 직장 상사 및 동료의 지원 등 직무관련 변인을 확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연구라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삶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 어머니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교육통계연보(2000). 한국교육개발원.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숙, 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 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김경신, 이선미(2003).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

- 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1(1), 139-153.
- 김은숙(2001).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요인 및 만족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경(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육통계(2000). 보건복지부.
- 서말희, 유가효(1999). 대구근교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2), 29-41.
- 신화홍, 조병은(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96 가정복지세미나.
- 윤종희, 김덕성, 안령미(2001). 거동불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5), 65-74.
- 이기숙, 김현지(2002). 중년기 남성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 *대한가정학회지*, 40(6), 133-144.
- 이숙현, 손승영(1995). 확대가족에서의 세대간 동거만족도 비교. *한국사회학*, 26, 145-164.
- 이신숙, 서병숙(1994). 노도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의 결정변인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2), 129-139.
- 이영(1986). 전문직 취업모의 자녀관리 현황조사. *아동학회지*, 17(1), 1-23.
- 이정숙(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 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 강기연(199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 *대한민국의학술원 논문집*, 209-233.
- 이정우, 강기연(2000). 도시주부의 공평성 인지와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 합산적/총체적 측정방법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8(5), 41-54.
- 이정우, 강기연(2001).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 인지의 사결정 참여도 및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9), 137-152.
- 이정우, 이정숙, 박미금(1998). 한국도시인의 가치형성 및 생활관리 전략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19.
- 이정우, 황경혜, 정진희(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2), 1-15.
- 이재림, 옥선화(2001). 저소득층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자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 이희정,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12), 25-41.
- 임정빈(1987). 가치성향 의사결정 양식 및 가정생활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효영, 김경신(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89-203.
- 전세경(1994). 도시취업모의 탁아유형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135-148.
- 전진우·이정우(2000). 도시주부의 부부간 공평성 인지·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 *대한가정학회지*, 151(9), 57-74.
- 조용수(1996). *한국의 신세대 혁명*. 서울 : LG경제연구원.
- 조혜정(1994).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체계적 접근.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132(2), 145-157.
- 통계청(2000). 경제활동인구연보.
- 천희영(1993). 한국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동숙(1992).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미(1995). 기혼취업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홍미영(199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심리적 안녕 :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은강, 조복희(1994).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12), 97-108.

- Barunch, G. K., & Barnett, R.(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2), 107-116.
- Caycedo, J. C., & Rollins, B. C.(1989). Employment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n women in nine wester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19(2), 1-18.
- Crní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Dodge, K. A.(1990). Special section :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67.
- Fuqua, R. W., & Labensohn, D.(1986). Parents as consumers of child care. *Family Relations*, 35, 295-303.
- Glenn, N. D.(1990). Quali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1980s :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18-831.
- Greenberger, E., & O'Neil, R.(1993). Spouse,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s and role 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181-197.
- Havighust, R. J.(1963). Successful aging in the gerontology. Charles C. Thomas Publisher.
- Hays, H. 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Hefferan, C.(1982). Determinants and pattern of family saving. *Home Economics of Research Journal*, 11(1), 47-56.
- Kim, H. J.(1992). Gender role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rean couples.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1(2), 99-120.
- Lennon, M. C., & Rosenfield, S.(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 The importance of op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506-531.
- Liu, B.(1970). Economic and non-economic quality of life.
- Longmore, M. A., & Demaris, A.(1997). Perceived in equity and depression in intimate relationships :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2), 172-184.
- Mann, M. B., & Thornberg, K. R.(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Marshall, M. C.(1990). Housework in dual-earner families : Does the division of labor make a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family life. Brigham Young University, Ph. D.
- Neugarten, B. L., Havighu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2), 134-143.
- Robbins, L. I.(1993). Single mothers : The importance of work on home and the impact of home on work. The Utah State University, Ph. D.
- Rogers, S. J.(1999). Wives' income and marital quality : Are there reciprocal eff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1), 123-133.
- Rosenbluth, S. C., & Steil, J. M., Whitcomb, J. H. (1998). Marital equality : What does it mean?. *Journal of Family Issues*, 19(3), 227-245.
- Sanchez, L., & Kane, E.(1996). Women's and men's constructions of perceptions of housework fair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358-388.
- Thompson, L., & Walker, A. J.(1991).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National

- Council of Family Relations.
- Umberson, D., & Gove, W. R.(1989). Parenthood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0(4), 440-462.
- Voydanoff, P., & Donnelly, B. W.(1998). Par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 predictors of parental well-being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344-355.
- Weiss, R. S.(1974). The provision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pp. 17-26).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Wesson, L.(1996). Relative income, power, perceived equ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earner families(role shari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Ph. D.
- Zvonkovic, A. M. J., & Schmiede, C. J.(1994). Influence strategies used when couples make work family decisions and their importance for marital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43(2), 182-189.